(可認物便郵種三第日十月四年九正大) 日五月二年一十正大 (日曜日) THE DONG-A DAILY, SEOUL 第五百二十六號 (一)

東亞日報

定價 壹個月八拾錢 六個月四圓五拾錢 一個年九圓 郵稅共 壹個月八拾錢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壹圓 四號活字一行 壹圓五拾錢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東亞日報社
編輯兼發行人 薛泰熙
印刷人 金弘基
電話 光化門 二三七番 二四五番
振替口座 京城 三四五五番

市內八學校長에게告하노라
培材選手權問題

昨年六月에培材學堂運動場에서擧行된全鮮少年野球大會에 不幸히紛擾가惹起되야 當時與論이沸騰하고 市內八學校長이 會合協議한結果 學界와運動界의此種不祥事를根絶하기爲하야 此際에痛烈한社會的制裁를加함이必要하다하야 培材學堂에對한四個條의決議案을決議하고 因하야培材學堂選手가參加하는競技運動에는一切參加치아니하기로되야 實地에在하야는培材學堂의選手權을剝奪한結果가된것은 本報에이의報道하얏스며 吾人의大히遺憾으로하는바이나 訓練을爲하야서는問責도可하며 制裁도必要할뿐아니라 사랑하는者에게對하야는鞭撻을加함이더욱深한者이라 吾人은此를不得已한措處로認定하고 오히려培材當局의自省을要望하얏노라

그러나歲月이如流하야 舊年이去하고新年이來하매 吾人의此問題에對한感慨는더욱深하며 그間에種々의大運動會를開催하얏스되 培材選手의入場을不見하매 一種의寂寥를感한것이事實이니 이제朝鮮學界의現狀을考察하건대 그零星함이實로寒心하도다 그生命의朝鮮의將來를託하고 發展을責할敎育機關이 果然幾個이나되는가 險難한前途와多難한行路를思하고 顧하야重任을託할敎育機關을見하면 果然雙任의哀淚가下할지니 그學業에努力하는者와 敎育에從事하는者가 協和하고愛護하고 一致하고團結하야서 共同한責任을遂行함에 그力을共히하고 共同한運命을開拓함에 그心을一히할것이아닌가 吾人의生活이悲하고또賤하며 吾人의家庭이貧하고또哀하도다 吾人이人에게侮辱을當할때에 泣하야訴할곳이어데이며 吾人이人에게迫害를受할때에 避하야그身을託할곳이어데인가 그泣하야訴할곳이父母의膝下가아니며 그避하야安할곳이兄弟의家庭이아닌가 吾人의父兄이吾人을斥하야受치아니하며 吾人의兄弟가吾人을責하야容納치아니한다하면 아 吾人은天地에一身을託할곳이無하니 이朝鮮의一般狀態이며 더욱이將來를開拓할大任을負한學界即敎育界의實狀이라 過失을責하고將來를警告함은 그責任이當然한바이나 이勿論必要한것은上述한바와如하거니와 그過失과그責妄으로因하야吾人의兄弟가吾人의團欒에加치못하며 吾人의家庭에入치못하며 北風寒雪에 吾人으로더부러暖爐를團함을 共히하지못함이엇지痛心할바이아니며 哀痛할바이아니리오 吾人은此를思하고彼를念하매 培材學堂問題에對하야果然感慨가一層尤甚하며 그寂寥가一層痛切하도다

이제吾人이市內八學校長에게告하고자하는바는곳이點이니 諸君은思하라 責함이過甚하면오히려그被責하는兄弟의心을失함이될지니 그被責하는者가兄弟의心을失하얏다하면 이를가하다할가 本來諸君의念慮가有치아니한가 培材學堂에對하야制裁를加함은그學堂을懲惡하야然한것이아니오 그學堂의自省을爲하야然한것이아니며 一般學界의進步와또한培材學堂의向上을思하야然한것인즉 諸君의本心은勿論사랑에在하다할지오 그他의念이無하얏슬것은事實이라 彼培材當局이此로因하야自省을經한바가있으면 諸君의目的은已達하얏다할지니 諸君은一片의苦心中에또한實行치못하는바이잇스며 學生에對한愛를爲하야職員에對한問責을緩하며 爲하야諸君의決議를撤回함이 可하지아니한가 吾人은勿論諸君의個人的美德을發揚시키기를爲하야 諸君의實際的寬容을期待하는바이라 寬容하라 諸君이여 그寬容이愛에서出한것은勿論이니 何故오 그間에一日이라도速히協和하고團欒하라

獨逸가는길에(七)
埃及訪問(續)
金俊淵(寄)

勿論或境遇에依하야는意外의利益을볼수가잇슴은勿論이나 利益볼생각을하는것보담損害안될수있는데로英貨로보내는것이必要한즉 金銀行에서壹圓에四十八馬克을 利益이올시다同行兩君은橫濱正金銀行에서信用狀을어더가지고왓습니다 即一馬克에約二錢의會計이엇습니다 現今은馬克의暴落으로 一馬克이七厘밧게되지못하는故로 大段한損害이엇습니다 別로 쓸데업시넘우길게되엿슴니다 다만은 또한가지말씀할것은배안에서얼마나돈이드는가하는것이올시다 門司를떠난後에日本汽船이면馬耳塞外지오는동안에上海、香港、新嘉坡、馬拉加、卑南、古倫坦、蘇士、坡西土等地에寄港합니다 그에외이는것이모도다새것이오 싸한平素부터귀에는만히드럿고 만보기를願하던터인故로만이上陸할수업습니다 또上陸해서求景할려면비싼밧게잇는故로 밧게하더라도極히短時間에될수있는데로뛰어보려고하니 마차와같은것을타고보자면 어려운세음이올수업습니다 하면아모리倹約한다하여도 라도 每寄港地平均十圓以上의金錢이消費가됩니다 萬一배가碇泊하는時間이넉넉해서上海서 蘇州、杭州、南京等地를求景하고 香港서九龍半島를지나서孫文氏의새政治理想을實現하려고하는廣東을求景하고 古倫坦에서는釋迦牟尼의齒牙를藏置한「캰디」의寺院을求景하고 蘇士에서는埃及에가서「피라밋트」下에서世界文明의三大發祥地의하나되는古代文明을回顧하려하면特別한費用이들것을생각하지아니하면 안이되겠습니다 埃及行만하여도約百圓돈이듬니다 李兄! 即今발서伊太利半島는우리의視野에들어왓습니다 우리는視野에들어와서 오늘은 十二時頃에는伊太利半島의南端에到着하고 배는方今「멧시나」海峽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印象을「시실리」半島가뵈인고同室의報時를二十二分뒤로돌녀노케되엿 습니다 昨夜에時計를十五分이올시다 하나昨夜에時計를본즉밤中두時 即今時計는「스트롬포리」의火山을右便에두고 그렇다보고잇습니다 六時五十分 에는「스트롬포리」島活火山을어서바라보앗슴니다 汽船은汽笛을들어서 지나갈니다 日本으로가는배만보아도 반갑습니다 日本郵船會社배三島丸이日本으로가는것을보왓습 니다 即今이通信文을쓰는동안에 西洋의濟州島를바라보는海峽 다보면서 「멧시나」海峽金俊淵은 五時五十分이올시다 場所는地中海「멧시나」海峽에서 日本郵船會社배 九百二十一年十一月十三日午後 味한通信文을씃냇습니다 날은千 行이아마더빨은가보이다 即今無 라든것이발서비엿습니다 배의進 告함니다 오날밤아홉時에뵈이리 에잇는海軍大尉白潮氏가와서報 와「시실리」半島가뵈인고同室 三時이올시다 兄님時計로는約七 時間이늣습니다 兄은아마即今東 亞日報編輯室에서事務를보시는 十一月十四日午前十時頃이겟습 니다 活火山에서는滾々한黑烟 이吐하면서燃岩이瀑布와갓치굴 어떠러짐니다 그偉大한壯觀은形 容하려도暫間說明할말을發見치 못하겟습니다 約三千呎이나되는 噴火口로부터海中에굴어떠러지 는그宏壯한火流는밤에걸닌밤 는달과함께造物主의二大神秘를 우리眼前에展開하얏습니다 「스 토롬포리」島는直經이八哩되는 圓錐形山이올시다 그러나그 山麓은地味가肥沃해서葡萄酒와 棉花의産出이豊富하고約四千의 人口를包有한다함니다 旣爲편 을다시들엇는故로昨夜에지나온 「멧시나」海峽의光景을暫間記錄 하겟습니다 「멧시나」海峽을 바로通過히기는十一時一十二時頃 이올시다伊太利半島의最南端과 「시실리」島의사이가「멧시나」海 峽이올시다 海峽은第一좁은곳 은幅員이一哩에지나지못합니다 伊太利便에는「레지라」라하는港 口가잇고「시실리」島에는「멧시 나」라하는港口가잇슴니다 다오 리동안熱帶地方의椰子林櫚櫚林 만보고沙漠地方의無味乾燥한景 致만보다가여긔와서야처음으로 南歐의明媚한山色海光을接할때 에胸襟은自然히爽快해젓슴니다 右便에「레지라」左便에「멧시 나」가손바닥에놋코보는것과갓 치明白히뵈임니다 그炫煌한百 島의電氣燈은晴天에걸닌달을無 顔하게하는것갓슴니다 「레지 라」港뿐만아니라 그山川에點 々히잇는山이만히잇슴니다 伊太利 에는歐洲人士의努力에다極히整頓 된遠近各村이 다極히整頓 意를表하엿슴니다 山間에잇는 推測하면다極히整頓되엿슬것 을推測하면다極히整頓되엿슬것 合니다 香港의夜景을極口讃揚 하얏더니亦是그와갓치밝은달 밤에이「멧시나」海峽內에와보즉 이近處夜景을天下第一이라고히 고싶흔생각이아니나는것도아니 올시다(三時五分)

現代政治의要義(六)
七、議會萬能主義(續)

人生의存在는死인가 그러치아니하면生인가 이것이人生의重大한問題이오 人生의生活을人生된問題는善인가 惡인가이것이人生의生活을率하는人生의 利益을占하얏스며 막스主義의가 瑞西「위텐」에서開催된會議에在하야 議會萬能主義가決定的勝 義를奉하얏나니 一八八〇年의 「리부크네히트」一派는 議會主 한者가無치아니하되彼「베벨」及 「묘쓰트」와如히暴力主義를鼓吹 屬하얏도다 獨逸에在하야는 正統막쓰主義者들은 大槪此에 改良派들이 此에贊同하야社會 的民主々義者의信條가되얏나니 導되얏스나 그後에至하야社會 治的民主々義의徒에依하야唱 議會萬能主義는 처음에는政 치아니하고 來歲에大會를 居中調停하야和然談笑中에此問 題를圓滿解決하고 來歲球大會 에는培材選手의勇姿가그他選手 와活潑한氣象과共히滿天下의歡迎을받는바되게하기를바라노라

平和의將來가如何(三)
鼎言生

所謂巴里平和會議의產物된國際聯盟이五里霧中에其形態가如何한것을確定키難한際에米統하에 氏는軍備縮少를目的하야華府會議의招請을發하얏도다軍備를縮少함은武器를減少함이오武器를減少함은戰爭을避함이며戰爭을避함은平和를樹立코저함이니結局軍費의縮少를目的한華府會議도또한平和會議가됨은多言을不要할者이라然則大戰後의第二平和會議가된華府會議는果然世界全人類로써平和의惠澤을蒙케하며特히該會議의產物된四國協約은太平洋上의平和와幸福을遂하얏는가勿論四個條의成文으로써十年間은반다시그精神과目的을達코저하는바니四國의協約이成立되얏스니吾人은少하야도十年內에는太平洋上의平和問題가何等支障의無할것으로확認치아니치못하겟도다

然이나華府會議의動機를窺할진대一種의興味가不無하도다即英國의野心이其一이오米의膨脹政策이其二이로다는英國은經濟政策으로써親米치아니치못하면大戰後의疲廢한經濟를回復하기에難하며經濟力을回復키爲하야米와兩手를交한以上은先히軍備縮少間題(特히海軍費縮少)를成功치아니하면不得하게되얏든다何故오英米間의經濟上肉薄한關係를見할진대英國의經濟的生命이海外貿易의隆盛에在함은何人이든지熟知하는바其一이오英國이原因이近代工業의二大要素인石炭과鐵의巨額產出로써數百年間英國의經濟富를積한結果四十億磅의海外投資와隆盛한國際銀行의活動과世界無比의海上權을掌握에在함은何人이든지熟聞한바其二며貿易은英國의生命이라故로或者此를脅迫하며競爭코저하는一國力을擧하야死로써防止할政策을國是로하얏도다然한데大戰前에在하야獨逸의殖民政策과海上權을擴大하야一大仇敵이라하면陸地보다海門의國防이더重備라하면陸軍보다海軍費가巨額됨은勿論이라然而大戰後의疲縮된經濟狀況은비록獨逸로부터收하는賠償金이有하다할지라도此로써五個年間의不生產된國家經濟를救濟코저함은滄海의一粟이라그能치못함은不問할事實이오次에비록平和會議後의日이라할지나一日이라도國防에對하야는等閑치못할지니此에至力을傾한즉其他의國家事業을救키難하며反하야國防費를獨히減한즉列強軍力上의伍에落할지라故로對等力을支保함과同時에此로써經濟力을回復코저함이니此가即英國의海軍縮少를必要上提唱한所以이오華府會議의眞相의一部이며大戰後英國의新野心의其一이로다

向上權의擴大와海外貿易의發達이英國에對하야一大仇敵이라한即이英國이何時든지獨逸을倒치아니치못하게된關係上맛참내大戰을開하야對獨宣戰을布한原因의最大가此에잇슴은吾人이또한知하는바이로다 如斯히英國은生命을生命으로써保全키爲하야快히大戰의犧牲場에多數의人과金力을投한結果獨逸을倒하얏스나可謂避虎逢狼으로昨日의債務國이던者今日은債權國이되얏스며前日은原料品의供給者로써今日은精製品의輸出者가되얏고一躍하야英의貿易市場을蠶食하는者이니그는米國이是이로다 英米貿易의趨勢가旣히如斯하니更히生命이危險된英國은將次如何한對抗策을施할것인가地理上及歷史上의關係로獨逸에對함과如히武力으로써圖키不能한바아니라敗獨後今日이라條件이無함은勿論이로다勢自然히武裝을捨하고平和的으로써交치아니치못할지니於是乎米와握手하는同時에海軍의制限을唱하야米國으로外華府會議를開催케한所以이로다

然而英이그의生命된經濟策으로外米와手를握할새何必海軍費의縮少를唱함은그抱負가何에在한가玆에는多少의主義가有할지니二十世紀의戰爭은陸戰보다도海戰이多하게되는時代이니그多한것을縮少하고저한것이라云할지며軍器와戰費로써比할지라도陸戰보다海戰이勝함으로써그勝한것을縮少함이라하는等種々의有할것이로다然이나그實은此等主義보다英國의切迫한事情이로特히海軍縮少說이生한것으로認하노니上述함과如히英國은海上權

(廣告)

高麗人蔘 良品宣傳

惡品에見欺한人士는來하시요
一、生、竹、色、白、品上
二、尾蔘、混入、絶無
三、全部、藥力、確實
四、人蔘、正實、拾六兩
藥用에適當한安心信用할上品人蔘을求하려면
(時價表依請求卽時付呈함)
開城東本町三六一番地
林家蔘業部
振替口座京城一〇、三六九番
京城府鍾路二丁目二〇
德興書林內
林家蔘業部出張所

輸出入商
綿糸 綿布 洋屬
精糖 麥粉 米穀
曹達 燐寸 染料
京城太平通二丁目
株式會社 共進商會
電話(二七二六、三〇一九)
振替京城(四三三八)
電略受發信用(キヨウシン)又(ハコウシン)

英美洋行各種染料
朝鮮總代理店
各種『染料』를『廉價販賣』하오니不拘多少하고注文하심을務望
地方特約店募集하오니希望者는至急通知하시면規則書를付呈함
『定價表』는請求하시는대로無代進呈함

一의獨習書
초이쓰讀本을學하는諸氏의不可缺할唯
朝鮮文譯(定價四十錢送料貳錢)
新訂 초이쓰讀本講解 第二
초이쓰讀本과내손날讀本도恒常準備되여잇습니다
京城府寺洞八十三番地
振替京城七一二四番
活文社書店

原鹽、再製鹽、各種叭實 販賣業
委託販賣
朝鮮總督府官鹽特約販賣店
仁川驛前
依知川商店
電話八一六番
電略イヂ、チ

第卅三期營業報告
貸借對照表(負債之部)
資本金 二、〇〇〇、〇〇〇
積立金 一五〇、〇〇〇、〇〇〇
諸預リ金 一、四八三、六五二
他店ヨリ借 一〇四、〇八六、九一六
支拂送金 五〇、三八五、〇三一
手形 三四四、〇三二
當座借越 八一、五九六
借用金 一、三〇〇、〇〇〇
末拂配當金 一四、二〇七
仕拂利息 三二、二六五
形式及保證債務 一三、七〇一、三〇〇
末經過利息 八八、八二五
當期利益金 四八、六七七
合計 六、四一八、九六一
(資產之部)
末收入資本金 三〇〇、〇〇〇
諸貸付金 三、八六一、〇〇〇
他店ヘ貸 一〇、九二、二四八、一二五
所有物勘定(地) 一四〇、五四七
所有物勘定(建物及什器) 一四二、五七一
有價證券 一三、三一五
公債貸付 一、三三九、九〇〇
當座勘定 一四、〇〇一
抵當物流込物件 一五九、三七二
拂渡手形 二三二、〇〇〇
保證債務見返 一、〇二九、二五一
本支店間未達勘定 一三、七八一、三〇〇
頭銀有高 二、一五〇、九一三
合計 六、四一八、九六一
右ノ通リ候也
大正拾一年一月
株式會社 漢城銀行

◇二月三日부터三日間
〇新寫眞順序〇
寫眞 女優의化粧室 全一卷
實寫 奏樂 全一卷
◎米國엘코會社 喜劇 新家庭 全二卷
◎解說者 崔炳龍君
◎米國아구메映畫 人情活劇 十三番의椅子 全六卷
◎解說者 崔炳龍 徐大君
◎米國新映畫社 連續活劇 第二回 怪常한影 全十五編 三十一卷
第五編 死의奇術 第六編 舍은脅迫 全四卷
◎解說者 金悳經君 徐相吳君
京城府授恩洞
團成社
電話九五九番

京城府堅志洞五四番地
東亞日報京城販賣所
電話二〇四九番
京城市內는本所에서配達함

新年과修養
修養과良書

카데지의勇將 한니발 定價四十錢 送料九錢
懸河雄辯 데모쓰테네쓰 定價六十錢 送料九錢
救國勇女 쨘다크 定價四十錢 送料九錢
톨쓰토이原著 나의懺悔 定價七十錢 送料十一錢
自由의神 루소 定價四十錢 送料九錢
過激派의眞相 過激派運動 定價五十錢 送料九錢
東明王實記 定價三十錢 送料九錢
京城府堅志洞三一
株式會社 漢城圖書
電話長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今後治者의전후잇치료실뵈
京城公平洞六十五番地
天一商會
電話 三六九三番
振替京城一〇〇六一番
地方購求者의圖書注文에對하야는特히引別하야드립니다

新輸着品

最新流行하는모든時計난
弊店에俱備하얏삽나이다
金時計三十五圓以上
銀時計十二圓以上
白銅時計十圓以上
金張時計十五圓以上
白金時計二百圓以上
金鎖四十圓以上
最新發行定價表
進呈送料二錢要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友助堂時計舖
電話五〇二(番)五九八替振

伏惟新春
京城堤川間賃金拾貳圓也
京城鍾路裁判所越便
海東自働車部
主 尹養元
停留場 堤川邑內
李殷榮

ドクトル 女醫 中村齒科醫院
技工主任 文熙台
明治町二(フランス教會下)
電話一五八三番

림질 全治藥
이리가지治療를하야도낫지아니하는者는本院藥을速히試하시오
朝鮮總督府病院 醫科大學帝國大學
百圓進呈
京城南大門外停車場通
有田드랏구本部
城南浦三和町 仁川宮町 大邱寺町 晉州大安洞 成興本町 統營部町 全州高砂町 廿浦 木浦榮町 群山東榮町 馬山都町 鎮南浦 元山本町 光州
有田드랏구

海軍條約正文

米國務卿「휴스」氏提出

二日正午二十六分에「휴스」氏는海軍縮少條約正文을本會議에提出하얏는데氏는海軍條約을朗讀치아니하고各條項의槪略만을說明하고主力艦問題에關하야는米國政府의提議에係한縮少計畫은完全히保케될터이라고聲明하얏더라(華盛頓二日發)

滿蒙除外拋棄

日本은滿蒙投資의優先權을借款團에開放하얏더라

又滿洲에日本人顧問聘用의件及二十一個條中第五項의拋棄東淸鐵道問題等은아직決定되지아니하얏스나土曜日의最終本會議에附할터이더라(華盛頓二日發)

中東鐵管理反對

華府會議의東淸鐵道共同管理提議는甚히中國朝野를驚愕케하야北京外交聯合會는反對의意를關係各國에通達하리라더라(北京)

華府會와露紙論調

華府에서西伯利亞問題가一段落을告함에關하야海參威露字新聞의論調는左와如하더라(海參威電)

「루-스키、라」(左系)는西伯利亞問題에關하야는單히日米間에意見을交換함에止하고本會議는此를討議치아니한故로吾人은極東委員會의決議로外華府會議의決議라고云키不能하며問題는依然不解決이라述하얏더라

「고-로스、지다이」(左系)紙는西伯利亞問題에關하야佛國은日本과別途의協約을結함이無疑하며英國은本問題가若日佛과交戰하게되면米國은孤立의位地에立하야日本으로外沿海州撤兵及北樺太還附에關한從來의聲明을反覆케함으로外不得已滿足하기不能한事는別로하고大體로는日本의成功이라今에沿海州에對한國際政策의重點은華府로부터大連에移하얏다述하얏더라

「스로우오」政府機關紙는過激派의親友인「고-로스、지다이」紙가說을唱한華府會議에서米國政府도共히何等辯論을行치아니하얏다고云하나沿海州現存한政體의繼續을如何히하기不能하도다고北京의云한바國際政策의重點이大連에移하얏다함은誤論이라云하얏더라

印度不穩善後策

「印度의自治를擴張하라」

印度獨立黨首領인「되-」氏가「타임스」紙에寄書하야印度의不穩에對한最善의對策은自治政府를擴張함에在하다述하고且提議하야日堅然한秩序를行하며且英國에忠實한印度各地의領域은此를可及的擴張하야도無妨한限에서土民의藩王을復舊치아니하면不可하나此는印度政策을逆轉케하는事는아니로다그리고藩王會議로外將來聯邦과同一한聯邦의基礎를形成케하라(倫敦電)

伊國內閣總辭職

議會의信任을失한所以

伊太利內閣은總辭職을行하기로決하얏는대右는議會에서信任을

◇平和의愛蘭(六) 英愛條約成立後解放된政治犯이『쌀디긴』監獄을出하야天主敎神父와馬車를乘하고歸家하는光景

失함에因한바政府의外交政策에對한反對及法王逝去의際加特力派出身大臣의行動에對한彈劾等과如한諸原因에依하야反對가增大된故로遂히百四十三名의議員을有한社會民主黨이反對派와提携함에至하얏더라(羅馬二日發)

後繼는『니치』氏를詮擬—伊太利『보노미』內閣은總辭職을行한바『푸와스지스트』民主黨及社會黨은後繼者로前首相『니치』氏를擧코자하며露國代表『노아』를招코자하야氏의反感을買하야不得已總辭職을行함이라云하더라

張作霖氏遂蹶起

梁內閣擁護通電

吳佩孚氏의梁士詒內閣彈劾運動에對하야反感的態度를持한張作霖氏는時局의混沌이遂히一段落을告함을看破하자突然히徐統領에게對하야梁內閣擁護의急電을送함과同時에其謄本을全國各機關에通電하얏는데其要領은左와如하다더라(上海一日發)

一、過般張作霖이가徐統領의懇請에依하야北京에赴하야梁內閣組織에就하야斡旋의勞를取하얏슴은財政及外交가甚히危機에迫한지라因此內閣解散의必要를認하고曹錕氏와共히充分히意見을交換한後此를決定한者이며

二、吳佩孚氏는山東鐵道問題를口實로하야梁士詒氏를彈劾하나吳氏의云함과如히果然同問題에就하야華盛頓會議全權의意見을無視하고北京에서小幡公使와直接交涉을試하야日本에讓步한事實이有한가大統領은宜히此點을明白히하야國民의誤解를解할必要가有함

三、若如斯한事實이無함에不拘하고尙且梁士詒를彈劾하는者가有하면此는私心으로써中央政府를掣制코자하는者인즉此야말로賣國的擧措라云할지로다

各省防穀盛行

江蘇、浙江、安徽의三督軍은大亂의發生을豫想하고湖北、湖南과共히防穀令을發布하얏더라(上海電)

貴族院

三日議事

三日의貴族院本會議는衆議院으로부터國葬費豫算의廻附를待하기爲하야定刻보다遲하야十一時十分에開議하얏는대德川議長은去一日勅選된富谷鉎次郎外六名의議席及部屬을定하고諸般의報告를了한後

▲高橋首相(登壇) 前日의岡田良平君의質問에對한答辯을行하고降壇하매

▲岡田良平君(登壇) 敎育行政調査會의目的은市町村敎育費의節減에在함은當時文部大臣의說明及委員의人選을見할지라도一點의疑가無하다하야首相의答辯을追窮한바가有하야고又岡田君은軍縮에依한剩餘金을小學校敎育費에流用코자함은此를諒하나然이나此는首相의言과如히前途不確定한者이라軍縮後問題中에는失職者補助救濟의補助艦建造와如함은相當한經費를要할지니果然幾何의剩餘金을得할가此에對한首相의所見이如何

▲高橋首相(登壇) 敎育行政調査會는市町村敎育費의整理와其內容改善을圖함에在함은最初부터確定된바인대此를政府가其後目的을變함은아니라政府가目的을變함과如하다는貴意見을表하얏스나此는謬見이라又昇格案은目下文部省에서調査中인바아직閣議에도提出치못하고又預算도編成치못하얏도다然이나高等敎育機關의擴張에는何人이나反對한者가無하며又普通敎育國庫補助는政府에서도常히忘하는바가아니나大正十一年度에는財源이無함에奈何、引續하야岡田良平君과首相間에質疑應答이有하고四時二十分에散會하얏더라(東京電)

豫算委員會

上院委員長選擧

貴族院은三日午前九時院內豫算委員室에서豫算委員會를開하고近衛文麿公을座長으로推하고正副委員長의選擧를行하야目賀田種太郎男의動議로上院에는前例가無한投票로外選擧하야其結果左와如히當選되얏더라(東京電)

當選 豫算委員長 二五票 子爵前田利定

當選 副委員長 三五票 江木千之

陸軍縮少上程

國民黨陸軍縮少決議案은七日本會議에上程되게되얏더라(東京電)

樞府議長奏薦

淸浦奎吾子氏

樞密院議長은同副議長의後任에淸浦奎吾子를奏薦하기로決定하고副議長은議長의選定에一任하기로하얏더라(東京電)

國葬費御裁可

三日兩院을通過한山公國葬豫算은即日左와如히御裁可가有하얏더라(東京電)

勅令第十八號

議定官樞密院議長元帥陸軍大將從一位大勳位功一級公爵山縣有朋薨去에對하야特히國葬을行함

又朕이帝國議會의協贊을經한大正十年度歲入出總豫算案을裁可함

產米增殖大計畫

總督府對議會說明內容

朝鮮產米增殖計畫實施에依한經費豫算總額七百六十七萬圓은大正十一年度總督府豫算面에計入되얏는바最近總督府當局의帝國議會에對한說明의必要를感하야此의內譯을公表하얏는대左에依하면

一、耕地改良計畫調査費 二、八三七、〇〇〇

一、土地改良事業工事費補助 四六二六〇、〇〇〇

一、特殊會社補給金 七、九二一、〇〇〇

一、小規模事業獎勵費(地方廳) 二、六四〇、〇〇〇

一、監督獎勵費(本府) 三、三三五、〇〇〇

一、採種田設置補助費 七、〇一四、〇〇〇

一、地方農業技術員設置費 六九六、九五三、〇〇〇

으로서此의改良豫定面積은二十七萬町步에達하는바本事業에提携될特殊會社는資本金二千萬圓의會社로서十五年限의者이라右에就하야齋藤總督은語하되朝鮮의產米를增殖키爲하야計劃을施設은朝鮮의實狀에鑑하야考慮企圖한施設로는基本調査의實施、工事의劃된者이오更히他에特別施設을遂할必要를認하야此로外本計劃에在함과如히一定期間에不渺한面積에對하야事業의遂行을期함에는工事費負擔의外에內容上實力을有한者로하야금其全事業의中心獎勵에膺케하기爲하야企

特殊會社設立問題

土地改良을目的하는

目下議會에審議하는中通過하면今年設立着手

篠原總督府農務課長談

總督府에서는朝鮮產米增殖計劃에伴하야土地改良을目的하는資本金二千萬圓의特殊會社를設立코자目下議會에提案되야齋藤總督及西村殖產局長이此의設立必要에對하야說明하는中이라함은別項東京電과如하거니와此에就하야篠原總督府農務課長은談하야曰

總督府에서는朝鮮產米增殖計劃補助金의交付及其他吏員에依한指導獎勵等이有한바此等은皆計劃目的을達成하기에貢獻함바이多하나그러나目下朝鮮의實情에照하야考量하는時는更히他에特別施設을할必要가有하나니大槪朝鮮의農家는(一)一般으로民度가低하고因循姑息하야打算에疎忽한事(二)水利事業은危險하다하야依賴하는事(三)土地改良事業과如히困難한共同事業의中心될人物이乏한事(四)技術者와資本을得하기에困難한事等으로因하야以上의施設만으로는農民自體의企業을促進함과如함은容易히望키不能한바이라從來朝鮮에서往往特定한個人에依하야水稅徵收의方法에依한灌漑事業과如한者或은近來施行하는土地改良事業이大槪日本人의所有地區域에比較的多함과如함은明確히這般의事情에依함이라云하겟스니此故로本計劃과如히一定期間에不渺한面積에對한事業의遂行을期함에는工事費를補助하는外에信用과實力을倂有한者로外此等事業의中心機關이되게하야一般企業者를爲하야一定한責任을負하야技術及資金의調達에就하야擔當케하야外前述한障碍를除去함이緊要하다하며尙且開墾干拓事業과如함은大槪相當한資力及經驗을有한企業家에依하야經營함이常例이나水路及水量等의關係上請負(都給)事業과倂合하야此를經營함이有利한故로外此를經營하는特設한機關으로하야금此等의事業을經營케하는政府의監督下에此를自作農養成의目的에利用하면細農의保護上稗益이不少할지로다그럼으로左와如한綱要가有함으로서爲先臨迫한各學校의生徒募集에障碍가無하도록各學科目等幾多實際上未決의問題에依하야土地改良事業에目的을가진特殊會社를設立코저하는바此가今期議會에通過하는時는今年度부터此를設立하랴하노라

中鐵敷設狀況

朝鮮中央鐵道株式會社에敷設狀決을聞한즉開通線은大邱鶴山間六十五哩、西岳佛國寺間八哩三、佛國寺蔚山間、七哩鳥致院淸州間四哩이요未開通線은蔚山東萊間三十四哩蔚山長生浦間五哩一淸州忠州間四十四哩인바同會社는資本金一千二百萬圓으로拂込은五百二十五萬圓인대全工事完成에要하는總工事費는七百萬圓을要하리라하며近々拂込을決議키爲하야重役會를開催하리라더라

土地改良을目的하는特殊會社計劃要綱

一、本會社는朝鮮에在한土地의農業上利를增進키爲하야必要한事業을經營함을目的으로할事

二、特別法令에依한株式會社로하야資本金은二千萬圓으로할事但資本金은朝鮮總督府의認可를受하야此를增減할事를得함

三、會社의存立期間은設立登記의日부터五十年으로함但朝鮮總督의認可를受하야此를延長할事를得함

四、本店은京城에置할事

五、會社에社長一人理事三人及監事二人以上을置할事

六、社長은朝鮮總督이此를任命하고理事는一定한資格을有한株主에就하야株主總會에外選擧한候補者中에서朝鮮總督이此를任命하며監事는一定한資格을有한株主에就하야株主總會에서此를選任함

七、會社의業務는左의範圍로할事

(가)土地改良事業의請負(都給)

(나)前號請負(都給)에係한事業과併行함을有利라하는開墾地干拓事業及其開墾干拓에關한土地의經營及分配

(다)前二號의外에朝鮮總督의認可를受한業務

八、會社는其都給에關한工事를引渡한後其工作物의安全에對하야相當한保障을함事

九、都給代金은主로長期低利의年賦償還法에依하야此를回收할事

十、會社의自己經營에依하야開墾又는干拓한土地는自作農殖키爲하야其成熟後此를賣却할事

十一、朝鮮總督이必要라認하는時에는會社에對하야土地改良事業의都給又는經營을命할事

十二、會社는拂込資本金額의五倍를限하야債券을發行할事를得할事

十三、政府는會社에對하야其設立登記의日에屬한營業年度부터十五年을限하야會社의定款所定에依하야每營業年度에株主에配當할利益金이其拂込金額에對하야年百分의八의比例에達치아니하는境遇에는此에達할만한金額을支給할事但其額이拂込株金額에對하야年百分의八에該當한金額을超過치아니할事

十四、會社의業務는朝鮮總督이此를監督할事

十五、朝鮮總督은會社의財產及業務에關하야監督上必要한命令을發하고又는處分을할事를得할事

十六、定款의變更은朝鮮總督의認可를受치아니하면效力을生치아니할事

十七、株金의拂込債券의發行每營業年度의利益分配其他重要한事項에對하야는朝鮮總督府의認可를受케할事

十八、會社의決議又는役員의行爲가法令朝鮮總督의命令又는定款에違反하거나又는公益을害함으로認하는時는朝鮮總督은其決議를取消하며又는役員을解職할事를得할事

十九、朝鮮總督은設立委員을命하야會社의設立에關한一切의事務를處理케할事

二十、創立總會가終結된時에는設立委員은其事務를會社의社長에게引渡할事

平博出品種類

來四月東京市에서開催하는平和博覽會에出品할京畿道管內의者는總點數三百九點人員七十四人인바其主要한品目은左와如하더라

▲白蔘(開城產)八點▲食料品淸酒醬油外十一點▲(農業)玄米大豆外五十八點▲(林業)事業經營狀況及其成績外六點▲(水產)海蔘營鹽▲(鑛業)鐵鑛外四點▲(化學工業)植物油、牛脂、牛皮外七十點▲(染織業)絹織物外四十九點▲(製作工業)神仙爐外九十點外朝鮮產業貿易株式會社東城支店으로道內生產莞草製品을出品且賣店出品種類別은種類四

橫說竪說

▲오랜동안問題가되얏슴은아니라最近約半年이나樞密院에外老翁의消遣材料가되얏던朝鮮敎育令은不日發表하게되얏슴으로來十一日에京城에서는祝賀會의擧行까지잇다하니總督府當局者들은爲하야는果然祝賀할만은말을드르면敎育令의新定은朝鮮의敎育發達에貢함이라는데事實은此敎育令이施行되라는傍頭부터幾多의拘束과制限이敎育界에加하게됨은甚히愉快치못한事이다▲朝鮮에는무슨일을하라든지不自由이지마는就中敎育事業가치不自由한것은업外私立學校의經營이라는것은對官廳關係에非常히困難한事業이얏다그런데新敎育令의實施에口를籍하야私立學校認可條件의制限其他在學生의게更히編入試驗을課케하는等新拘束을加함은現狀에서果然賀成할바인가▲原來民間의敎育事業은當局에서極力으로保護하고每事에便宜를與함이當然하거늘總督府當局者는此當然의事를行하기에너무誠意가不足한感이有할뿐아니라繼子에對한季母의態度로此에臨하라는想像을보게되는것은深入한遺憾이다

「動輒則抑壓과侮蔑」

議會의朝鮮關係問答

衆議院安藤正純君質問(六)

▲安藤正純君登壇 政府의錯誤된思想政策은內治外交上에現한바勞働問題에現하얏는바更히殖民地政策上에도遺憾이無히表現되얏다思합니다殖民地의統治라云하는事에關하야는日本의

殖民地政 策이라云하니非에는非常히非難이有합니다然而此等의議論을맘에今의要件이아니라非難이有한바爲先其根本問題에關하야言하면政府는此殖民地統治의方針으로는內地延長主義를取하야어데까지던지同化政策으로進行코자함이今日의政府殖民政策이라同化政策의善惡이라云하는其議論은別問題이요爲先同化政策은審한者이라하야

其同化政策을得한다하야도眞正한同化政策이라云하는者는다만制度와外形的形式을日本內地와同一히함이아니라고余는思합니다

同化政策 이라云하는事는爲主로精神上으로持來치아니하면不可하다思하는바이니即殖民地의人으로하야금本國人과親愛케하야始히殖民地의同化政策이成功하는者이라思합니다近頃朝鮮及臺灣에서는「사벨」主義가排斥되고文化政策이라云하는者의一端이行하게된과如한대即朝鮮及臺灣에서는諮問機關이設立되얏스나此는決議機關이아니며又其委員은民選이아니요官選이며

教育制度 도改善되얏다하나思想精神方面에서非常히遺憾의事가多하니다統治者가思想的으로差別的態度를가지고動輒則殖民地의人은抑壓하야溫情으로써此에接치아니함으로朝鮮人과臺灣人은侮蔑과冷情을感함이니同化政策이아니라漸次今日의政府에서思考하는不同化政策에導하는바가됨니다殖民地思想의問題에就하야도甚多합니다마는此를一々히陳述키未遑이나다만余는其一端인言論方面만을述하야此에對한方針을聞코자합니다新聞의發行—

言論의發 表에는新聞의發行이라云하는事가第一機關인바이니此新聞發行에就하야는非常히制限을加합니다아시는바와如히朝鮮에在하야는寺內伯의總督時代에는從來의新聞을買收하야御用新聞으로하고一切他의新聞의發行을許치아니하얏스며長谷川總督時代에도亦然하얏는바齋藤總督이된後로는사벨主義를撤廢하고文化政策을唱한다하야新聞發行과如한것은自由로되지아니할터인데大正九年四月에日本人成者가新聞을京城에서發行코자하얏는바數月을經過하야도許可치아니하고遂히如何한理由로써單獨히發行함을禁止하얏습니다

即京城에 는三個日文新聞即京城日報와朝鮮新聞이有하며此外에一個以上의新聞을發行함은不可한즉剩餘는一個뿐이라如何한理由로京城에는三個新聞이許可되는지未知이나此에願者三人中에一個新聞以外에는共히許可치아니함으로遂히三人이共同하야僅히一個新聞을發行함에至하얏습니다此가即今日에京城日日新聞입니다何故로如斯히言論의發表機關인新聞發行을阻礙하는지모르겟습니다

英儲『노아』訪問

英國皇太子는印度『노아』를訪問하얏더라(『쌩베이』三日發)

米國의綿製品

高價豫想

綿絲의形勢는寸進尺退의狀勢를示하는中인바東京市場에도作今의不需要期로早하야도今月中旬이나아니면買氣가不起하리라그럼으로綿製品은不振을極하는中이나最近米國에在한農產品市價는綿製品에比較的高價를示함으로써本年의作付는增加될來할지며棉花의原價探算은一段高價를豫想치아니치못할者가有하리라더라

商議聯合會

開催照會中

釜山商業會議所의提唱에係한軍縮決行에依하야生한豫算의剩餘二億餘圓의一部를割하야는朝鮮產業施設費에投할事를政府에要望할件에就하야開催할全鮮商業會議所聯合會에는各會議所共히異議가無하야尙早說이不少한바聯合會를開催하야은遠히方針을定함이可하다하야盟者에各會議所에對하야聯合會事務所에서照會를發하얏스며更히昨日에督促電報를發하얏는바近々聯合會를開催함에至하리라더라

專門校長會議

制度改正에伴한協議

總督府에서는四日午前九時부터官立專門學校長을學務局에召集하야新教育令發布에依하야制度改正에關한諸般事項의協議가有하얏는데其內容을聞한즉各官立學校의修業年限은新令에一定치아니하야本科及選科의課程々度學科目等幾多實際上未決의問題가有함으로써爲先臨迫한各學校의生徒募集에障碍가無하도록各學校의連絡其他에對하야協議한것이라더라

新敎育令裁可

新敎育令은樞密院의決定을經하야御裁可를奏請中이던新朝鮮敎育令은昨三日御裁可가終了되얏는대右勅令은六日附로發布하기로決定하얏는데七日官報로外公布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

京城商議運輸部會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三日午後三時부터運輸部會를開催하얏는대出席者는志岐、西崎、渡邊、金秊源四氏이며私鐵合同其他에就하야協議하얏다더라

辭令

(二月一日付)

總督府專賣局長 靑木戒三

京都市及大阪市에出張을命함

(二月二日付)

咸興中學校長 隔島亦八

(二月三日付)

京城第一高普校長 加藤常次郎

東京市及京都市에出張을命함

長崎、福岡、大阪、三重、靜岡、東京、滋賀縣、京都의各府縣에出張을命함

國葬과諸官廳

山縣公國葬當日宮中에서는廢朝함으로써總督府及銀行會社等은當日臨時休業하고弔意를表하리라더라

京畿道醫師總會

京畿道調査會에依한大正十年十二月末現在의京畿道醫師開業醫師總數는二百七十八名이며內務大臣免許狀所持者는四百五十名이라더라

郡守官舍建設計劃

總督府에서는地方在勤者에對한社會施設의一着手로十一年度에는全道에互하야若干地區에郡守의官舍를建設하라고此의豫算을十一年度豫算中에計上하얏다더라 十二人員十二名이라더라

消息

▲俞星濬氏 度支部事務官 同上

▲金在寬氏 同上

▲李明世氏(湖西銀行洪城支店支配人) 再昨入京

▲「伍延芳」元帥旅程 近々來鮮할佛國元帥『伍延芳』將軍의朝鮮內日程은陸軍省公文으로左와如히發表하얏는데二月二十日下關發二十一日京城着二十三日京城發奉天에向하야出發할豫定

▲昨日瑞典公使、는中國方面旅行中이든바四日夜京城通過歸東

商況

昨後場은大阪步調强感됨을따라當地硬軍의買氣旺盛하니稍高한三十三圓에始하야二圓八十五錢을最低로即時三圓臺에踊하야오동하려할을因하여場面은少許軟味를帶한觀望의態로始하니

▲第一節 當은不成이나中限은五錢이오先限은大阪初付昨止値보다三十八丁激低한三十九圓〇一錢을報하니軟軍이優勢로猛進하야當地亦激低인三圓〇五錢에始하얏스나大阪三節共히二十錢을傳합으로硬軍이更히得勢로三圓十一錢外지高價로三圓臺에서相支하다가前場은二圓九十錢低價로從容의細劉의勢로利益하다가三圓에止하다

▲第五節 當中限은다不成에先限은大阪六節十九錢과七節十錢에始하며八十九錢外지低價를보엿스나硬軍의防戰으로高價九十六錢으로踊을止하니高低의差三

一節 三十三圓二十八錢

二節 三十三圓五錢

三節 三十三圓一錢

四節 三十三圓二錢

四日後場

初付 三十二圓九十錢

止價 三十二圓八十七錢

大阪期米

四日前場

四節 三十二圓九十六錢

五節 [illegible]

商況

◎朝鮮銀行券(二月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銀現況(二月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日本金利及市況

(二月三日現在)(一錢單位)

	京城	東京	大阪
金利			
當座貸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四日

收數 二八七〇

金額 一二〇六二二九一

外國經濟電報

(二月三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市場의銀塊時勢는不成立이오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市場의銀塊時勢는電報未着이오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市場의棉花時勢는前電보다三十磅高로入電하다

大阪三品

四日前場

當月	二三九、九〇	二四〇、九〇
三月	二三四、五〇	二三五、六〇
四月	二三〇、一〇	二三一、九〇
五月	二三八、一〇	二三九、一〇
六月	二三七、一〇	二三八、〇〇
七月	二三七、〇〇	二三六、六〇

(寄付 / 大引)

大阪株式

四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高

四日의京株市場에서賣買成立高는左와如하더라

甲部 一千八百七十枚

乙部 三千三百五十枚

短期 四千九百六十枚

株式市場

諸株弱保勢

四日前場에京取立會는大阪安東取短期는百二圓九十錢에付하야三圓을高價로二圓八九十錢에相持하고

主要株步調

京取 短期百二圓九十錢에付하야三圓二十錢에止하고今週三圓八十錢、八十錢에付하야九十錢、八十錢、三十錢에止하고

安取 短期四十二圓九十錢에付하야三圓、十錢、三十錢、二十錢에止하고今週百三圓九十錢에付하야三圓에止하다

京信 은今週九十圓五十錢에付하야九十圓五十錢、二圓八十錢에止하고來週四十錢

奉信上場

[illegible]

場外雜株

(四日)

京信 同株에對한人氣는今日亦是不變하고十八圓五六十錢의買方에十九圓賣의時勢이요

穀信 此亦別無變動으로三十三圓五十錢에賣買成立되고

勸信 依然히二圓三十錢賣에二圓五十錢賣로少數의賣買가有하고

現信 前日과如히十五圓賣에雜持하고

安信 安取市場의上場을目前에控하고十九圓臺에上下하나不遠間高騰할模樣이오

中央物產 創立은如前未定이며二圓以上의延取引이有하더라

京株賣買價

(四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換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乙之部

四日

株名	今週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京信	[illegible]	[illegible]
奉信	[illegible]	[illegible]

短期取引

四日 前場 後場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明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綿絲標準價

(二月四日正午調査)

品名	價格
三八 旭 布	三九二、〇〇〇
三八 山 相 布	二四一、〇〇〇
三〇 S 相 布	三三二、〇〇〇
關 相 布	三三一、〇〇〇
丁 段 相 布	三三七、〇〇〇
吉 相 手	二八、〇〇〇
面 16 番 手	三五三、〇〇〇
女 10 番 手	三三二、〇〇〇
大 73 封	三二一、〇〇〇
鳥 細 布	一三二、〇〇〇
京 管 細 布	一四一
1800 晒 金 巾	一四、二〇

穀物標準價

(二月四日正午調査)

品名	價格
京城 玄米	三二、六〇
二等 玄米	二九、〇〇
地 精 玄米	二八、〇〇
京畿 白米	三五、八〇
一等 改良 白米	三九、〇〇
二等 改良 白米	三七、〇〇
小 豆	三三、〇〇
公 米	八錢四
白 米	八錢
良 粟	二六、〇〇
在 來 粟	二五、八〇
大 豆	一五、六〇
龍山 大 豆	一五、〇〇
公州 小 豆	一九、五〇
白 豆	一五、〇〇
牛 麥	六、五〇
大 麥	一八、一〇
小 麥	二五、〇〇
胡 麻	二五、〇〇
朝鮮 粉	一〇、五〇
滿洲 粉	一〇、五〇

ClibPDF - www.fastio.com

質素하고莊嚴한行列로

昨日의金雲養先生葬禮

양주평구의묘디를향하야작일진발 운양선생의령구는경성을영결하고

會葬날이왓다 경성이 운양김윤식(金允植) 선생을영결하는 사일의會葬날이왓다 봉익동(鳳翼洞)의선생자택에서는 유족의애통이더욱이 새로운중에 처리찬일혼아츰부터 발인의준비에 분망하얏다 오전아홉시반이 지나매흥곡성중에 발인은 시작되얏다 령구는 유족과문인의게 옹위되야 다시도라오지 못할길을떠난다

『영결종단』 의전건축분에상수를 위시하야 일동은나시더운눈물을 눈우에색리엇다 열시사십분 예뎡보다도 약간이려구는 진발하얏다「운양거사령풍김공지구」라는명정이 힝렬의선두에서고 동동만장 각락십쌍이 좌우에 벌럿는데 유언에의지하야검소한영여는 고인의 면목이 보이는듯이 앙상에가득한 아츰해를밧고 동문으로향한다 뒤에는상인세명이오 복인십여인이 따랏스며 인력거를련하야 수힝하는 각사회의인사가 근이빅명이라동구안에서 동대문까지 연도의좌우에는 선생의 마주막길을전별코저모힌사람이

『인산인희』를 이룬중에 검박하고도 장엄한힝렬은 길게련하야오전열한시십오분경숙히수레마당더의뎡구소에 도착하얏다

近年稀有한盛儀

영결식장의조객천여명

선생의게 최후의고별을 희하고커뎡구소에 모혀서기다리는 사람은 이미삼빅명에 이르럿다 령구뎡에영여와 요여의위치를 뎡한후 영결의례식은 시작되얏다 힝렬에수힝한사람 뎐차와 인력거로 계속하야 나오는사람으로 일반의 조긱은 실로천여명에 달하얏다 먼저별항에 보도한바와 가치유지의 치제가잇슨후

『일반의영결』 음시작하야 반시간으로 맛치고오정에다시 진발하야 선영으로 향하얏는데 산소에까지 수힝하는사람도 약 오십명에 이르럿스며 당일의조긱은 사회의각계급을 망라하얏슬뿐아니라 특별히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의생도대표 십여명이 졍복졍모로교사의게인도되야 영결식에 참렬하야 실로근년에 보지못하게성대하얏스며 금일오젼 열시평구이묘디에 안장하고 오후다섯시 수레마당더에서반우식이잇스리라더라

靈前에서致祭

성대히거힝

운양선생의령셔를 애도하야 영결"는정성을표하고저 張斗鉉、朴勝彬、崔誠熙、金瀾秀、崔昌善、李鍾駿、金[?]成、金性洙、張德秀、李相協 제씨의발긔로수레마당더의뎡구소에서 성대한치제를힝하고 령컨에 제문을랑독하얏는데 그제문은 아래와갓더라

祭文 (崔南善氏所撰)

維歲次壬戌正月初八日丁未에 그의素志를感慕하고그의遺訓을服하는張斗鉉等은 雲養金先生의靈柩에謹하야致祭誠衷을昭告하노이다 生하야生活化한藝術의樂을享하고死하야藝術化한生活의像을遺하니先生의一生이또한幸치아니하신가叢棘이愈楔호며興桂가益芬하고衆蘗이常聒호며獸雷가自鼓하야汎濫한浮雲이適足히明月의明한所以를反證하고橫塞한坑穽이自然히威獅의威한本相을克著하니先生의遭遇ㅣ또한奇치아니하신가 貧하며功하며德함에貴하고才요學이요識임에富하니貫로나量으로나先生의生活이또한豐偶치아니하신가德은五福의先에著하고行은三寶의總을該하니內로나外로나先生의操存이또한高明치아니하신가

身은廊廟에措하심에鬼ㅣ車에匹치아니하고息을海陬에假하심에譽이거의四方에遍하얏스며匡濟의彩虹이覆滅의烟炎에晦藹하고榮譽의巍殿이譏謗의丘山에掩遮되야猾滄孤舟가進退에艱危하시도다文章이日星이나씨하얏스니先生의際値ㅣ未嘗不華國의用을盡치못하고經綸이棄斗로대化物의功이周치못하얏스며憂時의熱淚는殘骸를泉下에携하고蓋世한理想은快績을生前에期치못하야滿腔抑鬱이幽顯에相運하니先生의賦受ㅣ未嘗不奇薄하시도다然이나先生의高節勁操ㅣ此로由하야益礪하시고先生의白意丹誠이此로由하야益彰하시며先生의生命力이此로由하야永遠에躍動하시고先生의心琴이此로由하야萬人에響傳되시엿도다

그過程은아모리艱險하얏든지良匠의大發明에對하야는그結果는作舞欣頌할따름이며그內面은아모리苦惱하얏든지神才의大藝術에對하야는그成績을隨喜讚嘆할따름이니八十七年間 十磨百鍊 千化萬神으로妙好完璧한一大美體를作成하신先生一代의生活展開相에對하야도吾人은또한그崇莊光華한藝術的完成을歌두嘆하고舞로喜할理由가有할뿐이오구터工程의悲酸하얏슴으로써淚를度落의筵에灑하고演局이窘厄하얏다하야哀를圓圓의幕에與할것업도다

窮達이數인가數ㅣ니何를傷하며死生이命인가命인댄何를戚할가先生一代의叢挫한波瀾으로써總히莊美深妙한一大生活海를成立하는必然的要素로思하는吾人은先生許久의喫苦를深吊치아니하는니先生으로하야곰此行路를取치아니케하얏든들吾人이하마典型的生活美의一大民族的財産을享承치못하얏슬지不可知할것이며

生으로써始하는人生이란藝術은死로써功程竣了、價値判定의必要한契機를作하는줄知하는吾人은先生今日의易簀을徒哭치아니하노니花로全開하고果로完熟하야吾人의生活上에一大感興의照의新境을開與하고一大概新泉을潛遺하신先生의決定的表現은임의遺憾이無할새다시餘悲를用치아니할이로다

然하다然하거나와歸하는先生과送하는吾人과의間에과연能히究竟의一憾과纖毫의一悲가無하랴噫홉다今에萬獸의武를齊치아니치못하고一指도翻을歛치아니치못할지언정또한此中에萬人一連의諧調共鳴이有하야能히時空을超越하고幽顯을聯結하고感應을迅捷케하고反射를直裰케하나니去하신다하나先生도畢竟此中에留住하시고送한다하나吾人도쥐양此中에和同하야先生과吾人과ㅣ或先或後한대로亘宇擡宙코此中에莫離하리니歸한다何憾하며送한다何悲리오先生의昭昭한靈威ㅣ暗裏에常遍하시고先生의煌煌한垂示ㅣ顯上에永耀하야磨하며襲去하고長三發四하시는際에靈權의滋脈이大地에惠潤하고神鰈의資譽ㅣ九天에威戴함을指日코可見하리니더욱何를憾하며더욱何를悲하리오

猗홉다盛하시고完結하신先生의生活美여圓成하신先生一代의藝術的價値여遊莫一觴이진실로先生의偉大를讚賀하는禮아니어니와至誠萬心은엇지면先生의英靈을昭格하는道일가하압나니尙卍며我等의霽忱을鑑하시며尙卍며我等의訣盃를饗하소서

◇사진설명

사진■사밀김윤식선생의장식광경이니 우는령려가 종로통으로 진힝하는 광경이오가온데는 동대문외뎡구소의 치제광경이오 아래는 뎡구소영결식장의광경

逮捕前의數分間

김도원이변석연의집에가서 변덕영을맛나수작하기까지

普合團事件繼續公判

보합단(普合團)사건김도원(金道源)등에관한공판은 작사일오전열한시에 경성디방법원 칠호법뎡에서이동(伊東)재판댱등촌(藤村)태재(太宰)량배석판사가 렬석한후 개뎡하고 피고의청명을검고한후 이동재판댱은 권회에계속하야심리한다고선언한후

『먼저김도원』 으로부터심리를시작하얏다 재작년 십일월 이십팔일 운이동변석연(雲泥洞邊錫淵)의집에갓슬때에 일주일안으로 돈삼만원을 준비하야두라부탁하고 예뎡보다 하로가압느게십이월 사일에갓섯든가 그럿소그날돈을 가질너갓든가 변석연의아들 변덕영과 약속하얏슴으로갓섯소 갈쩍에는 육혈포를가지고갓든가 가지고갓섯소 탄환일곱개를 재여가지고 갓든가 다섯알은너어가지고 갓섯소 수송동리종영(壽松洞李鍾榮)의집을갈쩍에 리종영의 말이아즉 과한도 되지못하얏슴은 아니라

『형사가와서』 차힐는지모르니 가는것이 위험하다하얏더니 피고는육혈포를 가지고나서면서형사가몃명이잇드라도육혈포로 노와죽이면 고만이라하얏는가 그런말은 어대서난말인지 알수업소 그때에가 가려하닛가 리종영의말이 아모리변석연이가 부자이라도 지금가치금릉이말는때에 과한도 되기컨에 돈이변통되지못하얏슬 터이니가지말라고말리는것을나의말이아즉 과한은 되지못하얏스나 변석연은 부자이요 결하야유지이며 조선의우로와은뢰를 가장만히바든사람이라 응당 이런일에돈을 변통이야 두엇스리라고 간것이요 형사가잇스면

『노아죽인다』 는말은경찰서에서도 한일이업고 예심뎡에서도한일이업는데 예심결뎡서에 그말이쓰이어잇기로나는리종영인가그런말을 하얏는가 하얏더니리종영이도 그런말을 하지아니하얏다는것을 엇지하야서 밧는지 모르겟소 변석연과약속하기를 돈이변통되면 대문에분필로 동그람이를그려두라 그러면 표를보고 드러오마고 하얏는가 그것은 나와그렇게 상약한것이아니라 리종영과변석연의 아들 변덕영과그렇케상약한것이요그날가서 중문에서 변덕영을맛낫는대맛침기다리든

『형사세명이』 데포코자하든가 그날가닛가 대문에분필로 동구람이 표를하얏기로 중문간에드러간즉 변덕영이가 나오면서 반가히인사를하기로 돈이되엿느냐물은즉 그의대답이 돈이다되지는 못하얏스나 얼마간은

危機一髮의瞬間

안에서뛰어나오는형사세명 김도원과형사의격투한광경

변통이되엿는데 혼자왓느냐 물으면서 일변중문을걸고 안으로 드러갑되다 그때나는 그와가치 문을 걸는것을보고도 변덕영이가 형사를매복하여놋코 나를잡으려고 문을거는줄은몰으고 도로혀나를위하야 비밀을 직히느라고 문을거는줄만아랏스며 그와동시에 힝랑방에서도 제집하안이나와서 대문을걸엇는데 그혀모르고 중문간에서 변덕영이가 나오기만 기다리엇소

이말을할쩍에 피고는 얼굴에분연한빗을띄웟다 판사는 다시변덕영이가 드러간후에 즉시형사가나왓는가 변덕영이가 드러간후에 발자최가나기도 나는변덕영이가 다시 나오는가하얏더니 의외에 세명형사가 한손에는육혈포를들고 한손에는 방망이를 들고나오기로 나는그제야 변덕영의

『흉계에속고』 형사에게뎌포되겟다하는생각이번개가치이러나면서 급히중문을열고자 빗장을뽑앗스나 문을재운법이 매우교묘하야 빗장을뽑으닛가 또결쇠가 걸니어 엇지할수업는데 세명의형사가 벼락가치 뎀비어 방망이로 머리와억개를 몹시따리어 류혈이랑자하고 한참동안 상지되엿는데 예심결뎡서에는 바로보면 형사류창렬이가 나를 잡기위하야응포로총을한방쏠을 향하야 놋코데포코자하얏다하나 실상 그런것이아니라 형사들이 나오면서

『즉시육혈포』 를노아란환이내팔에박이고머리가려거류혈이랑자하얏소 만일류창렬의말과가치 쉬을향하야노앗스면엇지하야 탄환이내팔에 박이엇겟소 나는그때너무흠시맛고 전신이피투성이가되여 탄환이 몸에 박히며 총소리가 련하야낫슴으로 나는

『두루막이』를 벗드닛가버서놋코 다라낫는가 류창렬이는그때안방으로 드리간후에 내가데포하기위하야 나를뒤에서 따리엇고 대문열고 뛰여나온피고가맛고 업드러진것을 데포코자하닛가 반항함으로 방망이로 따리엇스니 그제도만든방망이로 마가 터지엇스니

『종문을열고』 대문을열고 정신을차리어 이야 소리를질넛소 이때나는 안방으로 뛰어드러가면서 강도를보앗는데 이것을본 류창렬은 속가치 사람하나히 쓰러지는것을보앗는데 막으로 가지고잇던육혈포를노각할때에 분함이북바쳐 마지막으로 가지고잇던육혈포로 다는뎌 이에정신이희미하야 죽음이임박하고 나는 것이구나 만민족을위하야 일을하다가오

金道源은 死刑求刑

기타십팔명은 십오년외지구형

망이가 아닌이상뒤에서 따린것이암에 마젓슬리가 업슬터이며 총에마저 죽은사람도 격투하는 동안에 서로노앗슨즉 뉘손에마저죽엇는지 확실히 모르는것이요그런데 경찰서에서든지 예심뎡에서든지 피고의말은 듯지아니하고 류창렬의말만듯고 모라죽이는것은 공정한 법률이아니라고답변을맛치엇다

그다음리귀찬(李貴燦)변호사가 당시의광경을 목도한 변덕영류창렬과 감옥에서반년이나 지난후에김도원의 팔에서 란환을샘아내인 감옥의사를 증인으로신청하얏스나 모다각하를 당하고 속시립회하얏든내원(大原)검사는여러가지로 피고의 범죄사실과정상을들어 적용할법률을 말하고김도원은 살인의사가 확실한것을 릴증한후 최남에대한공소불수리 문데도각하하기를 바라며피고중 리종영김도원 리광세(李光世)조원세(趙元世)등은 특별히 엄벌할필요가 잇다하고 아래와가치 구형이잇슨후 오전중심리를 맛치고 오후에 계속공판하기로 되엿더라

▲金道源死刑▲李光世▲李鍾榮▲趙元世懲役各十五年▲李成珪▲張錫斗▲曹相伯懲役各八年▲趙新和懲役七年▲金錫洪懲役三年罰金二百圓▲金昇玉懲役二年▲金鍾陌▲張廷琥▲金永律懲役各一年六個月▲李堂華▲李允成▲金炳奎▲沈昌業▲趙基和▲金漢鼎▲崔鍾懲役各八個月

에 매우분주하얏는데 그회의문압에는 복장한경관이 여 잔인의출입을검하고미욱히할능데하는데 사실의내용은 절대비밀에붓치으로 아즉 보도할수가업스나 여하간쉬우씨를위하야 자미스럽지 못한것이라고 일반이 관측하며 사건은 점々확대하여 진다더라 (평양)

每日一萬九千의餓死者

아라사의참혹한긔근상황의실상 긔근에쌔진사람이일천삼빅만명

막사과(莫斯科)에서오던보에하얏스되 목하『엑카데링불구』현방면에서는 먹을량식이 업서서 주리어죽게된 빅성이 이빅팔만륙천명에 달하고 먹을것을부르짓는아해들이 삼만이천명에 달하며『크리스노힙스카야』현부근에도 주린아의무리가 삼만이라하며기타현재구주로서아에헛더서잇는 참혹한긔민의 총수효를 입하면 일천삼빅만명의 놀날만한수효에 달한다는데 그중에죽는힘을다하야 간신히싱명을 계속하야가는긔민이 이빅만명도 되지못하며지나간달일々에조사한것을보면『우부카』현디방에 잇는긔민의수효도일빅이십만칠천명에달하고 그날하로동안에 주리고병드러죽은사람이 칠천사빅명에 달하얏다는데 권긔와가치 다수한긔민이 날로々々먹는것을 부르짓는중에 그들에게 론배할량식은 빅분에 십오가량밧거업서 날마다 주리어죽는사람이 일만구천명에달하야 종련의업는참상을 이루어 잇다더라 (합이빈)

在上海大韓赤十字社總會

사당은안뎡근이취임하고 널니주식를선전할터라고

삭년 십이월경에 상해림시경부안에잇는 대한적십자사(赤十字社)안에서 총회를열엇는대몬커세측(細則)십이조를뎡하고요다음의총회는 삼월일일에 열기로 결뎡하고 다음에는 회장과기타임원을선거한결과 회댱은 안창호(安昌浩)감사는 송병조(宋秉祚)리탁(李鐸)으로위원은 량헌(梁濬)한진교(韓鎭敎)류긔(柳基)등외 열다섯명을임명하얏는데

『회장안창호』 는무슨리유인지 회장을사퇴한까닭으로 안뎡근(安定根)이대리로하야취임하게 되얏스며 적십자사업으로 안뎡근중국(中國)및로국(露國)디방에군사병원(軍事病院)을설립할일과 독립군이 주둔하는권선에서 무장한군인을 치료키위하야 구호반(救護班)을 파견할일등을 동의하야 만장일치로가결되얏고 리사당 서병호(徐丙浩)는다년간

『광복사업에』 로력하얏슴으로 훈공이현저한애국의 지사라하야감사장(感謝狀)을보내기로하얏다더라 (상해뎐보)

高麗共產黨首領

류동텬이일본을방문한다고

상해(上海)에잇는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으로부터「모스코」에 파견하엿든 공산당의수령인 류동천(柳東川)은 작년십이월경에 「모스코」로부터상해에 도라왓다는데 그는얼마후일본을방문하고사회상태와 기타사정을 자세히 시찰하리라더라 (상해뎐보)

鮮于鍟召喚

가택사지수색 사건은극히비밀

평양디방법원 검사국(平壤地方法院檢事局)에서는 지난이일아츰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겸대동동지회당(大東同志會長)선우순(鮮于鍟)을 돌연히 검사국으로불너다가 밤이들도록 엇던사실을심문하고 다시 평양부상수리(平壤府上需里)긔자릉참봉(箕子陵參奉)황석룡(黃錫龍)을 증인으로불너묻는동시에 의망으로 선우씨의가택과 기타바면에 대수색을힝하고 잇든날샹날도 계속하야 사실을취조하기

◆모 임◆

▲선린상업졸업생간친회 오는구일오후 여섯시정에 시내명월관(明月館)에서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졸업생의간친회를 연다는데 회비는 삼원이라는바선린졸업생은 모다출석하여주기를 바란다하며 그신입할 켜소는다음과갓더라
朝鮮銀行尹滋五、漢銀朴衡和、東亞日報金東鐵、大成株式曹秉相

▲중앙청년회월요강화회 금하오삼시삼십분에「生活의原動力」이란문데로홍병덕(洪秉德)씨가 강화

▲불교미회강연회 금오일하오두시에 영동불교중앙포교소에서다음과가치강연
英雄의人格 白初月
佛陀의榮光 魏見道洪
宗敎의必要 李元錫

▲시텬교청년회강연회 금오일하오칠시에 견지동시텬교당에서다음과가치강연
東學의精神과現代思潮 崔琉
宇宙와人生 李樂永

▲전도강연회 승동례배당에서는금오일오젼열한시에목사「리이씨」씨가「上帝의愛」란문데로 강연하고 오후에는 김배(金麥道)씨가「예수에서외오섯는가」라는문데로 강연할터이라더라

▲시내중앙례배당(市內中央禮拜堂)에서는 금오일하오칠시에는박희도(朴熙道)씨를청하야 설교하고하오일곱시에는예원청년회청우회(聖友會)주최로목사 김종우(金鍾宇)씨를청하야설교한다더라

▲수표교례배당강연회 금오일하오오십일시와하오칠시반에다음순서로강연
基督敎와社會의關係 張錫永
要求의人物 李泓潤

◈온도비교◈(攝氏)
今年昨日(正午)零下 〇·六
昨年昨日(正午)同 八·六
昨年最低 零下 二二·三
日出 上午七時四五分
日入 下午五時四五分

大氣豫報
晴 一時々曇

◈휴지통 ▲요사이 켜々에 강시가매우 자주나는 모양인데 그원인은물론 과한으로 인함도 만치만은 데개술이 취한중에 직가에쓸어져 죽는일도만타 ▲더욱히음력 정초에강시가 만흔것은쉬배술잔이나 어더먹은 것이 도로혀 불힝을이르킨듯하다 ▲작일시내에서 이러난 뎐차사고중에는아홉살먹은 아해가 다라나는뎐차에 뛰어오르다가 잘못되야넘어져서 중상을당하얏다는데 ▲이것은거리로 지날째마다 흔히보는 사실이다 어린아해들의뎐차타는 작란은 엄중히 단속할필요가업슬가 ▲부모되는 이들의특별주의 할것이라 하겟스며차장과운뎐수도더욱엄중히단속하기를 바란다 ▲작일은 립춘이라 해마다컨례에는소의립춘치위」가잇섯스나 작일은화차한일기가과연봄날과가탓슴으로 더치위에 고생하든 사람들의켜신을새롭게하얏다

오음피풍 全治藥
每年冬期면苦痛하시는오음피풍患者諸君은此全治藥의效力을一次試驗하시오此全治藥은오음피풍을全治하는百發百中의神藥이오며再發之慮도全無한永久根治劑(地方注文送料不要)
賣價 小壹圓 中貳圓 大參圓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濟世藥房本舖
振替京城六一一四番

謹賀壬戌新年
明月旅館
客室完備 寢具提供 交通便利
裵順南

補陰壯陽筋骨
興陽益壽丸
主治效能
先天不足 後天不足 腎氣虛弱 陽痿不起 下焦虛冷 遺精腰痛 精滑早漏 性交無感 老後無力 心身虛弱
▲本劑는秘傳經驗神方으로與陽益精에다시업는古來靈藥이라本舖에서優良藥品으로精選製造하오니一次試服하시옵
定價 半劑金八圓 一劑金十五圓
製造本舖 京城齋洞九十七番地 壽昌堂藥舖

好職業
貿易特許各國輸出品還近明女自由容易就業利益一日三圓乃至十月九十圓個人加工及地方特約大募集
志願하시는諸氏는金壹圓을先送하시면營業見本各種及說明書一切又는敎授書一切를卽送達하오
大邱府西城町一丁目四七番地
振替口座京城一〇二七〇番
東京二葉□▲時給朝鮮總本部

보시오!!
살것친것、버짐、여드름
면종곳치는데나치운세
평화 연부액
케하는데에 연부익을내
뭇코그무엇이잇삽내가
?피부를고로고아름답
게하는데에일조흔약으
京城鍾路二丁目
總販賣所 동아부인상화
電話 二〇四 振替 參〇壹貳
라야그효력을암니다
남이연부익은쉬보신후
쿠첼르(氣候)따라린드

祛痰止咳散
기침으로고생하시는人士여
이藥저藥할것업시
꼭!此祛痰止咳散을服用하시오
이祛痰止咳散은엇더한 기침에든지效驗이第一이라 得效하신분의感謝狀이每日踏至하야 積而丘山이오며이藥을服用하신분으로서 기침병을노치안이하신분이업사오니特히試驗하신後이藥의靈效를特斷하시옵소서
主治效能
男女老幼、咳嗽喘咳、稠粘唾痰、神經喘息氣逆不眠、聲啞不出、咽喉疼痛等에神效함
定價
一週分金壹圓、二週分一圓九十五錢
三週分二圓九十錢、四週分三圓八十錢
五週分四圓七十五錢
製造本舖 京城大平通一丁目二〇五番地
慈善堂藥房 主 金錫胤
振替京城一九〇七番

中東學校敎員 金演培先生 編述
校閱
最新入學試驗準備書
定價金一圓 送料(書留)十二錢 (要先金)
◎入學試驗期는不遠!
發賣所 京城府寬勳洞三〇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販賣部
振替口座京城八二五五 電話長一九五四

병으로피로히지내
시는여러분에게
京城府竹添町拾壹番地 轉精療京城分院長 洪在珪
平壤府鷄里拾番地 轉精療平壤分院長 吳基周
大邱府上町七拾壹番地 轉精療大邱分院長 金炯燦

ClibPDF - www.fastio.com

우쇠탈

閔牛步

(三十六)

수상스러운어부

박월희는 어대로 갓는가 병참소 고간속에서 종적을 감춘뒤로 다시 그림자도업다

이로부터 몃칠을지난뒤에 배도병참소에서 머지아니한 못가에 줄을 늘이고 고기를 낙가에 골독한군인이 잇섯다 그복쇠눈보건대 아직 장교는 되지못하얏스나 아조 낙병졸은 아니고 틀림업슨 교졸지는모양 같혓다 마침 그엽흘지나던 어부가 잇서 잠간발을 멈추고 군인의 낙시질하는 모양을 보더니 「홍 아모리 큰소리는하지만 고기가 두시 글々々하는데 나가는 변 미처 건저내지못하는 가엽겟구면」하고 조롱하며 지나간다 군인은 그말을 듣고 고개를 들며 「무엇이야 이놈 버릇업는 말을하면 고이 가지 못한다」 어부는 지지안코 「어부인지 농군인지도 분간을 못하시는 것보 낙시질을 잘못하는 것도 고이치안습니다 여봅시요 령감 내 좀 낙거볼가요」하며 어렴업시 군인의 엽헤가 안는다 군인은 어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말어부의 줄로 알엇는지 「어디 신소리를 하엿스니 낙거보아라 만일 못낙는 날이면 몰속에 다 집어너을터이다」 「어부」가 「몰」이 무서워서야 어부노릇을 하겟습니가」

요롬속 들어가면 몰고가 커렴헤 여단이지요 하며 낙시배를 밧어 놋고 위선 그이쉬고 釣어 보더니 아々이 커녕가 안을니지를에 불어서 냄새가 다 쌔컷는걸 하며 자긔주머니에서 무슨 떡가튼것을 쓰내더니 그것을 한약가치 뭉처 낙시끗헤 쐬여가지고 몰속에 집어던지니 파면장당하던 감이 사실 신분노지나가 천에 별커대는이 엇가 무엇인가 어부 이것 단복한모양으로 둘여보게 자네쓰구리는다 방술가란을 노코요 군 그러케 함부로 가라처들여요 늣겻머리나 낙거내엇다 군인은 홍사랑이란 번는돈을 수가다가 각々 니아 그것을 정말 신심님이신걸 어 그런 코말괴요 도감이 꿀에서도 적은잠으라면 그것은 령감만 못하지만은 심선을 잠으라면 나탕할사람이 업습니다 이상한말에 군인은 얼작놀나서 어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는 조금도 겁내지 안코 레사의말을 「그러나 령감독감 이굴의 도적잡이는 잠봉하십되다 나는바로 그아래 갈대밧헤서 그몰질을 하고 잇기배문에 다보앗슴니다만은 령감은 잡수단도 조으십되다 무슨소리 늑하다가는 경을칠가 무서워서 꼼짝못하고 숨어잇섯지만 그날은 엇더케 혼이낫던지」

군인은 더욱々々 놀나서 「무어 데 가보앗단 말이냐」 어 「보고말고요 밧마다 그런커에서 그몰질을 하는것이 커의들 생화숙임니다」

그날은 여러이서 몰을 건너기에 심선예가 아리로 몰너올을 알고 그몰을 커노앗더니 걸니고말고 그야말로 그몰이 무여지도록 걸넷서요 그러서 곳 거더올너노코 다시 한번 고커칠라고 하는판에 그만 혼이낫지요 이편쪽 어덕우에서 화광이 일어나더니 총소리가 콩볶듯하는데 불빗헤 가만히 보닛가 그편 야단이 어려잇것슴닛가 총을 맛고 몰에떨어지는놈에 잡버지는놈에 그런데 령감 그중에는 바로녀자나 달음업시 곱살스럽게 생긴 젊은애가 잇는것을 그사람까지 물속에 집어넛코말엇지요 곳 뒤커가서 살녀라도 주고 십흡듸다 그런데 그자의 일홈은 무엇인가요」 군인은 부지중 리약이에 팔녀서 「글세 남복을 입은 녀자가 잇섯다는데 일홈이 자는 나도 몰나」 어 「그러면 정말 녀자임니다 그러 녀자가 죽고는 또 팡자한녀자 일세 군인들틈에 석여서 그 밤중에 도감이 굴을 건너고 그런데 그밧게도 또 하나 석기가 튼 미남자가 잇섯지요 그자는 엇지되엿슴닛가」 군 「그자는 죽는것을 내 밋커못보앗소」 군 「못을 보이지 그자는 사로 잡혓거든」 어 「아 그미남자가요 하々 그러닛가 그 령감 쎄서 달녀들어 쏟어가던것이 그미남자임니다 그러 나는 그

배보던 령감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걸이요 참 날내십되다 이러케 안커 낙시질 하시는 모양을 보아서는 그러케 날내보이지도 안는데 령감은 퇴장에 나가시면 얼골이 덧보이십되다 분명 령감이시지요 그자를 잡던것이」

군인은 더욱々々 리약이에 팔녀서 「옹 내여 나호자 잡은것은 아니지만은 여럿이 달녀들어 잡엇지」 어 「그러도 령감 쇠서 데일 먼커 날내십되다 령감 쇠서 데일먼커 달녀들지 안으섯으면 못잡고말엇슬는지도 몰을걸요」 군 「그는 그리 내가 엽섯드면 못잡고 말엇지」 어 「그런 인케 곳승차되시겟지요 커그려 데장은 사로잡어 노앗스니 령감 그려서요 그것이 대장이지요」 군 「그러치 대장중의 하나이지」 어 「그러면 대장이 둘이던가요」 군 「그리 두사람이 서로 잡힌것은 두사람중에서 일흔편임니다 그런」 군 「무엇 이 일흔것은 인으로는 희귀한 미남자야」 어 「그미남자는 엇지되엿셋요 지금도 살어잇나요」 군 「살어잇고 말고 인간파리로 압송하여서 곳 군대신이 손소 심문을 한다는데 그자는 국가의 비밀을 쥐고 잇스닛가 죽여서는 큰일이야」 어 「헤 국가의 비밀 아무려던지 굉장한 사람임니다 그려 밝히자면 아리셋파라케 결은사람인데 국가의 비밀을 쥐고잇다니」 군 「국가의 비밀이란 무슨말인지 비셔 위가 아닌」 어 「알고 말고요 나라에 관계되는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겟지요」 군 「물건이 아니라 일이란다」 어 「아 일인가요 그러면 령감셰서 또 따리를 가시겟습니다 그려」 군 「어 나는 안가」 어 「올치 령감 가는 시니가 거긔를가시고보면 이 병참소가 또 위태하닛가 그러하시겟지요」 군 「응 그런 첩이지」 어 「그러면 언케쯤이나 압송하나요」 군 「글세 느커도 일주일 안에는 보내겟지」 어 「비!지금은 시월삼일 이닛가 그러면 열흘쇠 되겟습니다 그려」 이 모양으로 다 조커보는 말에 군인은 다시의 심이나서 어부의 얼굴을 살펴보니 어부역시도 이번에는 발각이 되엿을줄로 알엇던지 멀안간 얼어서며 고든발길로 군인의 등어리를 차니 몸가에 갓가히 안젓던 그는 엇지할 여가도 업시 곤두박혀 바로 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몰줄을 걸넷는지 잠간 기다려도 다시 떠올으지 아니하매 어부는 비로소 밥눈 보코 「이러케하여두면 낙시질 흔하다가 멋쇠리 커쌔진줄 알겟지」 하고 한번 사방을 둘나보앗다

이 어부는 대체 누구인가

老少腎氣强壯劑 滋春屑 (王治効能) 神經衰弱 陰萎 早漏 ... 支那各地에서 回春藥으로 到處에 妙方効如神하야 萬口稱讚인 高貴先服하야 諸氏의 許多寶 / 一劑廿日分拾圓 京城府進洞八十四番地 特約販賣 本舖 滋春屑 德盛堂

紅蔘問題推測

總督府專賣局長 靑木戒三氏는 本紙旣報와 如히 開城出張을 被命하야 三十一日 朝同局庶務課長 今村武志氏를 同伴하야 同地專賣局出張所에 赴하얏는대 一行과 共히 任井三井物産支店長 天野次席等도 同行하얏는대 右에 就하야 某消息通은 曰 總督府專賣의 紅蔘은 從來 三井物産支店에서 此를 引受하야 中國方面으로 輸出하얏는대 歐洲戰後의 財界不況 其他의 關係로 數年以來 需要가 不振함으로 總督府 三井物産間의 契約에 多少의 改善을 하던지 或은 根本的으로 特實制度로 變革할가 하는 事에 就하야 相當히 調査硏究를 하야 次次 各會同 兩處首腦者의 會同으로 畢竟 紅蔘問題解決에 關한 重要用務를 帶함이라 하더라(開城)

康翎漫筆

新春劈頭에 地主諸君에게 告하노라

康翎分局 一記者

諸君이 高堂大厦에 十指를 不動하고 出則車馬從僕이오 入則錦衣玉食이라 此를 提供하는 者誰오 하면 即 諸君의 土地小作人 家族一同의 勞力産出이라할수잇다 그러면 諸君이 小作人에게 對하야 特別愛之護之하야도 猶云不足이어든 도리혀 摩之暴之는 抑何心腸인고 其打作의 一例를 말하면 所謂 打作官의 飯米이니 運搬費이니 藥草를 分半할 時 算縮이니 하고 十에 一式 加取하는 等 許多名目으로 橫暴蔑厥하며 또는 小作人으로 하야금 甚至於 豚柵淸潔, 土壁修繕 外지 夫役을 提供케하고 尤甚한 地方 即 長連等地에서는 藥草半分도 不與한다하니 諸君의 所居는 瓦蓋이오 所着은 洋緞이나 小作人의 蝸屋蓋草와 綑履織席의 資料를 何에서 辦出하리오 所謂 飯米라함은 諸君의 打作을 監視하기 爲하야 派送한 者의 粮米이오 運搬費는 土地所在地에서 買渡하면서도 무삼 費用이라하며 算縮은 諸君 即 地主에게만 잇고 小作人에게는 업는지 此等 無理濫徵은 古昔貪官汚吏라도 不爲할바이라 聞하면 翌年秋收時에는 長利로 計算하야 每十斗에 五斗式 加捧을 함으로 小作人의 家族은 卒歲를 掀고 愁淚滿面而佇立長嘆하는도다 또 小作權을 朝夕變改함으로 地主家中에는 餅餉가 交錯하고 舍音門前에는 還路가 公行하야 敢怒而不敢言하고 戰慄不已하야 諸君의 鼻息만 仰窺하니 嗚呼라 彼何人斯며 此何人斯오 朝鮮에 總督政治가 有한 以來 他의 法令은 細々密々한 中 一般地主保護에는 專力을 傾注하야 高堂大厦에 居한 者는 必曰 人格者라하고 良田美畓을 置한 者는 必曰 名望家라 하야 一大官吏를 銓衡할 時에도 반다시 資産을 標準함으로 諸君은 放縱無忌하야 果然 無所不爲할이 即 總督政治의 一缺點인 同時에 小作人保護의 政令은 尙今不聞하얏도다 噫 一言하고 今日 小作人의 形勢는 狹路絶處에 立하야 唯柔順할수 업고 可服從할수 업다 할지니 農夫一生 閑日 노 三百六十日을 田野間에 短衣赤脚으로 惡戰苦鬪하지만 妻孥가 凍餒하며 但 諸君의 耳目之所好와 心志之所樂을 充用함에 不過할 뿐이니 [illegible] 其辛苦함을 可히 推知하겟고 遍身綺羅者가 不是養蠶人이라 한것은 即 諸君을 指稱함이 안인가 易地思之할지라도 今日 小作人의 困窮이 不言可知일지라 若 積年寃鬱이 一朝爆發하면 諸君의 不利는 姑捨하고 社會上 收拾지 못할는지도 未知이로다 諸君이 아무리 橫暴에 橫暴를 加하고 乘並에 乘並을 行할지라도 彌潮가 有限하고 缺月이 復圓은 天道의 循環하는 常理이라 普天之下가 諸君의 獨舞臺가 아니오 率土之濱이 諸君의 永所有가 되지 안닐지니 他人의 窮狀을 보고 同情心이 生하는 것은 即 人生의 本分이 아닌가 近年에 各郡에서 所謂 地主會가 組織되얏다 하나 會費만 每年 幾千圓式 徵收하고 事業으로는 腐敗한 馬鈴薯種子 若干配付에 不過하며 特別한 計劃이라는 것은 或 視察團募集이나 或 品評會開催이니 하나 視察團은 幾個富豪의 長距離旅行인즉 小作人에게 무삼 利益이 잇스며 品評會는 形式인 但 多數效牛의 幾個日 出演에 不過하니 무삼 效果가 잇스리오 所以로 地主會는 無用이니 解散하는 것이 오히려 適當하다는 評判이 浪藉하도다 諸君의 即 地主會議時 言說을 聞하면 無非活佛이나 其行動을 보면 疑心 夜叉이니 所謂 地主된 諸君이 [illegible] 諸君은 資産階級되는 幸福을 永久享受하라면 即 諸君의 小作人의 救濟方針과 保護機關을 一日이라도 早速히 講究하야 勞資協調를 保하고 將來의 大問題를 未然에 防止하기를 切望不已하노라(康翎)

平壤府協議會

平壤府에서 去四日 午後二時부터 府協議會를 開催하고 左의 諮問事項을 協議하얏더라

諮問事項

一, 軍用地買收에 關한 件
二, 官有地買收에 關한 件
三, 傳染病豫防消毒에 從事하는 府職員及傭人手當條例改正의 件
四, 府囑託員手當及雇員傭人給料支給規程改正의 件
五, 平壤府給水條例制限의 件
六, 電氣鐵道敷設의 件(平壤)

安鶴水制組合新設

左記水利組合成立件은 今般認可되얏슴을 二月二日 附總督府告示로 發布하얏다더라

安鶴水利組合 咸南安邊郡所在 (安邊)

安州天道教講道會

平南安州郡天道敎區에서는 京城 李敎化氏를 請邀하야 一月二十九日부터 二日間 講道會를 開하얏는대 氏는 「人生哲學講話」란 題下에 毎日 滿堂聽衆으로 하야금 人生의 根本的 覺醒을 惹起케하얏스며 同氏는 二月一日 朝에 沙里院으로 發向하얏다더라(安州)

金宇植氏의 寄附

全羅北道 鎭安郡 龍潭面 玉渠里 金宇植氏는 爾來 該地方公共事業에 多數한 金員을 寄附하든바 今番 龍潭靑年會 設立됨의 對하야 同會의 基本金으로 金二百圓을 特히 義捐한故로 同會는 右氏의 熱誠을 感荷不已한다더라(鎭安)

伽倻自働車開通

陜川大邱間 通行道路는 來往行旅가 每日 絡繹하는 南北要衝인바 交通機關은 尙今 自働車 一臺 업슨故로 不便이 不少하더니 陜川 高靈間 人士들의 出資組織된 伽倻自働車部가 近日 營業許可를 得하야 去月二十八日부터 開通되얏다더라(陜川)

崇大學生修養講演

去月三十一日 午後七時 平壤崇實學校上層에서 崇實大學生會自治課主催로 曹晩植氏를 請邀하야 修養大講演會를 開催하얏는대 頗히 盛況이엇다더라(平壤)

事業計畫委員增員

平壤有鄰會에서는 元日 新學校를 復活케하야 普通學校를 設立하기로 한다 함은 旣히 報道한바 인대 最初 右의 計畫委員으로 七人을 選定하얏던바 今回 更히 增員할 必要가 잇슴으로 左記 諸氏를 更히 委員으로 選任하얏다더라

朴經錫, 白潤植, 洪鍾洙, 李性眞, 鄭仁河, 黃錫龍, 李賢泰, 韓允燮, 羅一鳳, 崔順眞, 鄭在命, 朱孔三, 黃錫燦 (平壤)

江陵金婦人의 節行

江原道 江陵郡 連谷面 松林里에 居住하는 成在仁 次子 成必文君(廿二)은 客年十一月中에 偶然 得病하야 二十餘日을 苦痛하든 中 그 夫人 金氏는 毎日 夜半 無人時에 無件單身으로 風雪寒苦를 不計하고 自家로부터 約十町 可量되는 山谷間 淨泉을 汲來하야 家後 城隍堂에 祈禱를 誠心으로 하얏스나 不幸히 去十二月初에 永眠하자 그 夫人도 即時 從後하얏슴으로 그의 節行을 遠近이 感服하며 當局에서도 方今 表彰手續中이라더라(江陵)

永生學校生徒遠足

咸鏡線 新上 私立耶蘇永生學校生徒中 健壯 男女 二十八名은 本校幹事 李睍洙君의 引率로 去月三十日 午後一時에 本校를 出發하야 新上 金津江 鷺野, 雪上을 跋涉하야 定平郡 文山面 岐山里 守眞洞에 至하얏다가 同四時半에 還校하얏다더라(新上)

金君의 適材適任

守巖 仙史 金有鍔氏는 幼時부터 書畵의 趣味가 有하야 書法은 其族 周璉先生에게 習하고 畵法은 其族祖 竹里先生及 平壤畵家 楊石然先生에게 學한바 近年에 至하야는 其聲名이 漸高하는 이라 丹靑同好會 書畵協會 書畵硏究會等 數多 會員을 兼하고 加之 能書能特이든바 今回 李王職所管 美術品製作所에 採用되야 販賣品案外交의 要務를 執한다더라

●安州靑年會長永眠 平南安州郡 安州靑年會長 金瀅畯氏는 就任以來 一年間 諸般 會務에 熱心努力하야 當地社會에 貢獻이 多大하든바 去一月下旬부터 身病에 罹하야 呻吟하다가 마참내 不幸히 今月二日 逝去하얏는대 當地人士는 眞로 追悼함을 不已한다더라(安州)

寶城靑年産業講演

陰曆新年을 歡迎하는 農家에게 産業上 意義잇는 新精神을 注入키爲하야 寶城靑年會主催, 同郡農會後援으로 正月十五, 十六 兩日間 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 産業講演會를 開催할 터인데 當地 各 農園 監督家 一般人士를 多數招待하야 [illegible] 茶業栽培와 夜間의 素人演劇으로 聽講諸氏를 慰安할터이며 講師는 本會員中 熱誠家를 推選하얏슴은 勿論 外에 本道參與官 石鎭衡氏와 同農務課長 宮本政藏氏를 請邀키로 決定하얏다더라(寶城)

山亭峴大音樂會

平壤山亭峴敎會靑年傳道會主催로 來六日 午後六時 同禮拜堂에서 平壤一流의 音樂家를 請하야 大音樂會를 開催한다더라(平壤)

女子靑年會歌劇會

城津基督敎女子靑年會에서는 旣히 本報에 揭載됨과 如히 去月三十一日 普信女學校內에서 歌劇會를 開催하얏다 定刻前부터 入場者가 多數의 聽衆으로 立錐의 餘地가 無하야 午後七時 定刻이 되매 會長 金柔貞氏의 司會로 開幕하얏다 初에는 變裝한 女學生의 禮辭가 有한後 西洋舞踊 幼稚園學生의 滋味스러운 演劇이 잇섯스며 特히 聖劇의 十處女譬喩와 花園이란 題로 梅, 蘭, 菊, 竹等 數十種의 꼿들이 丹裝한 仙女의 손에서 微笑하는 天使王의 압해서 各々 時期를 따라 舞蹈하는 樣은 맛치 新天地에서 天使의 舞蹈하는 感이 不無하얏다 金敬姬孃의 獨唱은 聽衆의 歡呼를 喚起하고 數種의 喜劇으로 閉幕하얏는데 當夜의 收入金은 壹百四拾餘圓이라 此는 同夜學部經費에 補充한다더라(城津)

各地靑年團體

龍潭靑年會組織

去月十六日 全羅北道 鎭安郡 龍潭面에서 一般 有志 諸氏의 協議한 結果 龍潭靑年會를 組織하고 同總會를 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 開한바 同日午前十時 會員及有志 六十餘名이 會集하야 設立委員長 許鋼氏가 開會의 辭를 述하고 同會規則을 通過한後 無記名投票로 會長 許鋼 副會長 朴鍾瑞 總務 高泳善 庶務部長 朴箕權 [illegible] 財務部長 高泳杜 諸氏가 被選되고 高福淳 徐相善 兩氏를 書記로 選定한後 次에 來賓側에서 林炳棹 高燦鉉 兩氏가 答辭를 述하고 同午後三時頃에 閉會하얏다더라(鎭安)

城津靑年擲柶大會

本紙에 旣報한 本社城津支局主催의 擲柶大會는 適其時 事故로 因하야 停止되고 客月二十日 當地有志 金榮培氏가 當地靑年一同을 私邸로 招待하야 擲柶大會를 開催한바 [illegible] 長으로 金榮培 梁珍鴻 兩氏가 被選되야 下午七時부터 甲乙 兩便의 擲柶戰이 始作되야 兩便이 互相激戰타가 同十一時에 終了된바 優勝은 梁珍鴻軍의게 歸하야 手巾 一枚式 贈하얏스며 更히 食堂에 就한後 略干의 餘興으로 閉會되는바 當夜의 總費用은 金榮培氏가 自擔하얏스며 一般靑年은 該氏에게 對하야 感謝不已하더라(城津)

新刊紹介

紹介를 願하는 冊子는 東亞日報社 編輯局으로 보내주시오

▲啓明(第五號) 改造의 出發點 「回顧, 現代朝鮮婦人에 對한 要求, 諺文後解」 다이쓰等 (京城仁寺洞 一五三 啓明俱樂部) 定價 送料共 三十二錢

▲白潮(隔月刊, 創刊號) 「漂泊」(露子詠) 「密室로 도라가다」(月灘) 「꿈이면은」(露雀) 「저음의 시련」(稻香) 「微笑의 虛華市」(懷月) 「樂府」(春園) 「여춘柳」(憑虛) 「사로메」(朴英熙)等 三篇의 小說 外에 全部 詩, 戯曲, 感想, 紀行, 童話等 純文藝로 百四十頁의 大冊이 創造, 廢墟等의 出刊이 停止된 以來로 純文藝雜誌라고는 影子도 볼수 업는 이때에 白潮의 出生은 我文壇을 爲하야 慶賀할 일이고 內容이 엇지되얏던지 이것도 역시 一號나 二號에 거름을 멈추지나 아니할가 오직 長壽를 바란다 (京城樂園洞 二五六 文化社發行 定價六十錢)

때의 소리

▲우리 안동현 청년은 참으로 몰지각하고 무사상하다 적어도 [illegible] 이상의 청년이 잇는곳에 청년회 혹은 무슨 교육기관을 조직하야 지식을 교환하며 수양에 힘쓰며 덕육을 장려하거나 혹은 현대문명에 [illegible] ▲참 남북그리운 말삼이올시다 [illegible] 우리평양은 기성이 삼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대 이만흔 기생들이 [illegible] (希望生) ▲ [illegible] (老)

根治丸 定價 十日分 金壹圓 一劑
本劑의 特長 ▲本劑는 梅毒患者에 血液中의 病毒을 吸收하야 大小便으로 排出하는 根本的 驅梅劑로 第一有力한 者이오 ▲本劑는 [illegible]

治麻球 定價 一週分 金壹圓八十錢 二週分 金壹圓
男女痲疾의 靈藥 斯界에 盛行하는 但只 利尿劑的의 痲病藥으로 同視치 마시옵 [illegible]

化學的新藥 灰白軟膏 驅梅膏 定價 [illegible]

本舖 京城南大門內 救世藥館 電話 三〇一〇番 振替京城 一二六九番 上先金注文은 送料不要 代金引換은 五十錢以上

犬印 타반時計 機械堅牢 示時正確 體裁優美 滿鮮總代理店 京城本町一丁目 株式會社 大澤商會 京城支店

義手足 手足업난人에게 急告 京城本町一丁目五一 高野製作所

米穀 大豆 小豆 雜穀 海産物 入品賣買 ㊣ 裕政號 安東縣新市街 電話 [illegible] 貨物運送取扱 ㊣ 裕政運輸公司

殺母蛇電氣蒸燒 天與之靈劑 滿鮮代理店 川村銓造 京城府本町四丁目 [illegible]

拜啓 陳者 時下 [illegible] 國內通運社 平壤驛前 長電話三三三番 主任 宋仁浩 李光堯

高麗人蔘 附大賣出 景品附賣出 開城特産物 高麗人蔘, 人蔘蜜棗, 人蔘精, 人蔘珈琲茶, 人蔘珈琲糖, 人蔘粉末 景品 一等(一本)金時計 二等(三本)金指環 三等(三本)金眼鏡 四等(四本)銀匙一組 賣出期間 自大正十一年二月二十日 至大正十一年三月二十日 朝鮮開城東本町 三四四番地 東洋人蔘商會

賜宮內省御用品榮 金庫 漢商會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二一六五番

帽 洋水 便利靴 木 襪子 本商會의 特色 需用者의 福音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永明商會 電話 一七六番

今般左記場所에서 運送業을 開始하옵고 [illegible] 東亞運送組 京城蓬萊町一丁目五番地 電話二〇九七番

特製松草甲大賣出 蔡薛俊浩商店 振替京城四〇八五番

廣告도 記事 廣告도 重要한 一種記事이라 注意하야 熟讀玩味하면 實益과 趣味가 不少하오

汽車時間

[illegible]